

# “포천적 精神 형상화 · 실천” 약속

## 이희용 포천예총회장 취임식 및 출판기념회



(사)한국예총 포천지부 제3대 지부장이 취임식이 5월19일 오후 2시 포천여성회관에서 박운국



이희용의 제2대 잔여임기를 명예롭게 수행하시고 오늘 이임하시는 강수동 회장님께 가슴깊이 감사의 말을 전해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포천예총의 시작부터 애써주시신故김진동 회장의 숨은 노고를 기리며 포천의 예술인을 대표하여 임기동안 헌신의 노력을 하시고 이임하시는 강수동 회장님께 감사하다"며 "새로이 정책을 맡게 되신 이희용 회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포천예총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 온 포천예총이 앞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행사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민 수준에 맞는 문화예술의 대중화에 꾸준히 노력해주시고 시민들의 삶을 한층 풍요롭게 하고 건전한 여가문화의 확산과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이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희용 예총회장을 시인으로 등단 추천한 정공채 시인은 "예총 회장의 자리는 예외로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한국문협, 한국펜클럽, 한국현대시인협회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취임으로 축하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희용 제3대 예총지부장의 취임식에서 "이희용의 연극이야기" 출판기념회가 개최됐다. 이희용의 연극이야기는 2001년10월10일부터 2004년7월31일까지 포천신문에 연재된 문화칼럼으로 필자의 예총회장 취임식에 맞춰 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기념식에서 포천신문 최호열 발행인은 축사를 통해 "3년 동안 포천신문에 연재된 칼럼이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출간되어 16만 시민의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필독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축하했다고 한다. 뮤지컬 <쇼 보트(Show Boat, 1927)>의 주인공 이희용 포천 예총회장의 지역발전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포천신문에 대한 사랑이 지속되

기를 기대하며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안익수 시인이 발표한 축사 '남신의 연극이야기'로 우리는 만났습니다"에서 "가산의 흙을 때내 맨살로 달구어 가슴으로 굽더니 이 세상 담아내는 황토그릇이라 당신은 미학의 장인입니다"라고 밝히고 "오늘도 당신의 살피심엔 한해 전이 흘러서 파란빛 땅을 노래로 지며 새벽이슬로 파란새를 키우며 인간의 대지를 사랑해야 할 먼 길을 물어 세상의 산술을 푸른 뉘를 구하고 있으니 어서 불려오라"고 말했다. 다음은 제3대 한국예총 포천지부 임직원 명단이다. **고문** ▶리효종 제12대 경기도교육위원 ▶강수동 (주)삼우석재 회장 ▶이영재 경기도무형문화재 ▶박윤국 포천시장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장 ▶김원민 ▶지부장 이희용 ▶부지부장 송장희 이규연 이재욱 이경진 한동업 현대관 ▶감사 원용식 안영숙 ▶직인 ▶사무국장 임갑연(외부, 총괄업무) ▶사무차장 김진진(내부, 행정업무) ▶지문위원 ▶안익수(저술편집 분야) ▶박정근(해의문화,문학분야) ▶김성철(문예창작분야) ▶신강호(영화,미디어예술분야) ▶박문우(법률분야) ▶윤영연(영국,뮤지컬 분야) ▶오윤균(무대미술분야) ▶서석철(공연분야) ▶김영복(문화정책분야) ▶최현주(무대디자인 분야)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韓國의 선비정신 · 65

### 너는 새 임금의 공신이나 나는 망국의 신하일 뿐



리효종 포천한자사 대표

남을진은 조선의 개국공신인 남재(南在) 및 남은(南潤)의 속부다. 고려 말 정치상황이 문란해지고 이성계 일파가 득세하자 그는 친구들에게 이별을 고하며 말했다. "차마 내 눈으로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지 못하겠소. 차라리 시골로 돌아가 밭이나 갈면서 살겠소." 그는 주위 사람들과 이별한 후 곧장 양주 봉황산 아래로 내려가 은거하였다. 이윽고 조선이 건국된 후 이성계는 남재를 불러 말했다. "그대의 숙부 남을진은 오래 전부터 내 친구요, 조정에서 인재를 구하고 있으니 어서 불려오도록 하시오." 이에 남재는 작은 아버지를 찾아가 임금의 뜻을 알렸다. 그러나 남을진은 그 봉작마저 끝내 받지 않음으로 말했다. "내가 산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같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는 마침내 죽기로 결심하고 이부자리에 드러누운 채 조카의 청을 거절하였다. 결국 남재는

숙부의 뜻을 꺾지 못한 채 울면서 돌아갔다. 남재는 도성으로 돌아와 태조에게 이 사실을 고하였다. 그러자 곁에 있던 영의정 조준이 아뢰었다. "남을진은 죽음을 각오한 것이니 그 지조를 빼앗기 어렵습니다. 원컨대 뜻대로 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태조는 조정에 불러들이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그를 사천백에 봉하였다. 그러나 남을진은 그 봉작마저 끝내 받지 않음으로 말했다. "내가 산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같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는 자신이 세상에 남아 있는 한 조정의 부름이 계속될 것을 알고 산 속에 은거하기로 하였다.

마침내 그는 길게 머리를 풀고 통곡하면서 감악산으로 향했다. 그는 감악산에 동굴을 파고 그 속으로 들어가 여생을 마쳤다. 그는 굴 속에서 눈으로 해를 보지 않았고, 두 발로 굴 밖을 나온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남을진이 죽을 때까지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오늘 날 우리주변에 있는 철새 정지인들은 되새겨 볼 일이다. **남을진(南乙珍)** **생몰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본관은 의령이며 호는 병재(丙齋) 또는 사천(沙川)이다. 1388년(공민왕17) 현량과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쳐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에 이르렀다. 정몽주, 길재 등과 교류하였으나 고려 말에 정치가 문란해지자 양주(楊州) 사천현(沙川縣) 봉황산(鳳凰山)에 은거하였다. 조선이 개국한 뒤 태조가 사천백(沙川伯)에 봉하고 회유하였으나 신하의 자로서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하여 적성(積城)의 감악산(紺嶽山) 석굴에 들어가 은거하였는데, 그가 죽은 뒤 그 석굴을 남산굴(南山窟)이라 하였다.

## 충목공 유응부 선생 추모 전국한시백일장

### 포천문화원 주최 200여명 참가 포천종합체육관에서 개최

포천문화원(원장 이민구)이 주최하고 포천시, 포천시의회, 포천향교, 유도회 포천시지부, 포천한시에서 후원한 충목공 유응부 선생 추모 전국한시백일장이 5월9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백일장은 시 단위 각급기관 단체장과, 문화원 임·회원, 전국의 한학자 등 한시동호인 20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사육신의 한 분인 충목공 유응부 선생의 충절을 추모하는 내용 높은 작품을 작시해 출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시형은 칠언율시, 압운운天, 眞, 然, 遷, 傳으로 했으며 고선 시관은 사계권위자를 초빙 엄선했으며, 전국의 유명 및 한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시문 향상의 계기를 마련했다. 대회결과 입상자는 장원 1명, 차상 2명, 차하 3명, 참방 10명, 가장 26명 등 26명이 입상했다.

한편, 포천문화원은 시집을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이며 이날 주요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원 이창경 ▶차상 정성호 ▶차상 안정영 ▶차하 안대환 ▶차하 박동근 ▶차하 김진선 ▶참방 원종숙 ▶참방 이용욱 ▶참방 김병연 ▶참방 김중진 ▶참방 박동욱 ▶참방 이창우 ▶참방 장대익 ▶참방 김우식 ▶참방 안경환 ▶참방 김중구 ▶가작 김용락 ▶가작 안재대 ▶가작 금동기 ▶가작 박재환 ▶가작 김정문 ▶가작 고근환 ▶가작 안치덕 ▶가작 임봉춘 ▶가작 박종열 ▶가작 이운균 ▶노익장상 이규환 ▶노익장상 문상호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최초의 '북 뮤지컬(Book Musical)' <쇼 보트(Show Boat, 1927)>

1927년에 발표된 <쇼 보트(Show Boat)>는 최초의 '북 뮤지컬(Book Musical)'로 일컬어지고 있다. 북 뮤지컬은 노래나 춤보다 대본이 더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본이 먼저 만들어지고 대본의 흐름에 따라 음악이 나중에 만들어진다. 다양한 주제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정통 뮤지컬을 말하기도 한다. <쇼 보트(Show Boat)>는 당시로는 대단히 획기적인 작품이었다. 많은 대사와 탄탄한 스토리, 미국의 민요와 흑인음악의 멜로디, 그리고 그 리듬을 적극 수용했는데 오늘날의 많은 진지한 뮤지컬들의 표본이 되고 있다. 작곡가 제롬 켈(Jerome Kern)과 작사가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Oscar Hammerstein II) 그리고 실용적이며 도전적인 작품 성향을 지닌 제작자 플로렌스 지그펠드(Florence Ziegfeld)의 결합은 당시 브로드웨이로써는 최상급의 조합이었으며 공연 전부터 이미 미국 뮤지컬에 큰 획을 그었다고 있었다. 뮤지컬 <쇼 보트(Show Boat)>의 이야기는 앤디 선장의 호화로운 여객선 '코튼 블러섬 호'에서 시작된다. 이 배는 미시시피 강(Mississippi River)을 떠다니며 선상에서 보드빌 공연을 하는 쇼 보트이다. 작품 초반에 먼저 쇼 보트의 혼혈 스타 줄리아와 백인

스티브가 금지된 결혼으로 인해 파국을 맞게 된다. 당시 혼혈인과 백인의 결혼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앤디 선장의 딸 매그놀리아와 떠돌이 노름꾼 레버넬은 첫눈에 반하게 되어 결혼한다. 그렇지만 레버넬의 도박벽으로 인해 둘의 결혼 생활도 금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 레버넬은 매그놀리아와 딸 킴을 남겨둔 채 집을 떠나게 된다. 몇 년이 지난 후 성장한 킴은 뮤지컬 스타가 되고 매그놀리아는 우연히 시카고의 어느 클럽에서 줄리아와 재회한다. 줄리아는 이미 스티브에게 버림받고 인종차별로 인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앤디 선장의 새 유람선에서 매그놀리아와 딸 킴은 자신들을 떠났던 레버넬과 행복하게 재회하게 되고 이미 폐인이 되어버린 줄리아의 공연을 떠나 는 쇼 보트를 쓸쓸하게 바라보며 이별을 고할 때 막이 내린다. 뮤지컬 <쇼 보트(Show Boat)>는 극적인 분위기와 진지한 내용으로 뮤지컬 코미디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품이다. 미국 중부를 북에서 남으로 관류하는 미국 최대의 강인 미시시피 강에는 많은 배들이 있었는데 쇼 보트는 실제로 19세기 후반에 미시시피 강을 건너던 고급스러운 목조 유람선이었다. 이들 유람선들은 사용목

적에 따라 도박장도 있었으며 뮤지컬 속의 앤디 선장의 쇼 보트처럼 보드빌 극장도 있었다. 뮤지컬의 내용과 가사에서 보이듯이 미시시피 강 유역에서 일하는 흑인 노동자들과 혼혈인들의 삶은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보다도 가혹했다고 한다. 뮤지컬 <쇼 보트(Show Boat)>는 이들 흑인들과 혼혈인들을 등장시켜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라고 할 만큼 진지한 주제인 인종차별과 인생의 애환을 그렸다. <쇼 보트(Show Boat)>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의 강(O' Man River)'의 가사를 보면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유색인들의 애환이 엿보이는데 노력하는 것도 자책고 사는 것도 자책하는 내용과 함께 그렇지만 죽는 것도 두렵다는 내용의 노래이다. 그렇지만 노인의 강은 계속해서 흐를리고 있다는 처절한 흑인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 음악적으로는 미국 민요와 흑인음악을 과감하게 수용하기도 했는데 '노인의 강(O' Man River)'에서처럼 남부 흑인민요가 사용되었는가 하면 교회의 성가를 바탕으로 한 음악과 왈츠, 그리고 오페라적인 음악도 사용되었다. '노인의 강(O' Man River)' 이외에도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들이 '믿어요(Make Believe)'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Can't Help Lovin' Dat Man of Mine)' 등이 지금까지도 애창되어지는 노래들이다. <쇼 보트(Show Boat)>의 도입부는 매우 인상적이다. 항구로 들어오는 배 위에서 노래와 앙상블이 마치 관객을 모으는 갈매기처럼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이어서 각 등장인물들이 소개된다. 요즈음 뮤지컬에는 일반화되어 있지만 대화처럼 주고받는 듀엣 곡의 사용도 당시로서는 매우 독창적인 것이었다. 뮤지컬 <쇼 보트(Show Boat)>는 당시에 흥행 면이나 평가 면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는데 최근에도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서 리메이크 되곤 한다. <쇼 보트(Show Boat)>는 뮤지컬 영화로 여러 편 만들어졌다. 특히 1936년판이 명작으로 꼽히고 있는데 국내에는 1951년에 리메이크 된 영화가 잘 알려져 있다. 다소 영화적인 문법으로 각색되어지기는 했지만 뮤지컬 <쇼 보트>의 원작 무대의 분위기를 살피려는 데는 문제가 없다. **윤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99)

### 나뭇꾼과 호랑이

내 고향 포천에는 호랑이 이야기가 많다. 특히, 왕방산 국사봉 호랑이는 영험한 동물로 신성하게 받는 최고의 호랑이였으나 호도하는 호랑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있어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옛날 포천 어느 마을에 나뭇꾼이 살았다. 매일 왕방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하다 장거리에다 팔기도 하고 겨울 땔감으로 쌓아 두기도 하였다. 하루는 왕방산 깊은 큰골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앞밭이 이따금 들던 큰 호랑이를 만났다. 입을 짹짹하며 입맛을 다시는 모습이 금방 나뭇꾼을 달려들어 잡아먹

을 태세였다. 그러나, 피도 많고 착한 나뭇꾼이 호랑이에게 잡혀 먹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피심이 발동하였다. "아휴, 호랑이 형님 처음 뵈겠습니다. 소생은 장거리 웃마를 사는 나뭇꾼이었는데 이렇게 형님을 뵈게 되니 눈물이 앞을 가려 말이 안나옵니다.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아버지 말씀대로 여기서 형님이 사시군요." 천연덕스럽게 나뭇꾼은 소리쳤다. 그뿐이 아니었다. 닭의 똥 같은 눈물을 똑똑 흘리며 슬픈 빛을 띄고 호소하였다. 나뭇꾼의 눈물어린 형님 소리를 들으니 호랑이는 깜짝 놀랐다.

"아니, 나뭇꾼이 네가 내 동생이라니 무슨 말인가 말이나?" "아버님의 큰 아들이자 내 형님이 태어날 때부터 호랑이로서 산 속 깊은 왕방산 골짜기 큰골에서 살게 하였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시며 요즈음은 큰 형님 생각에 병환이 나서서 병에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계시지요."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닭의 똥 보다 더 큰 호랑이 눈물로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앗빠싸, 내 미련하고 몽매하여 허미터면 내 친 동생을 잡아먹는 죄인이 될 뻔 했구나. 지금이라도 내 동생임을 알았으니 다

행이로구나." 호랑이는 나뭇꾼을 등에 업고 날듯이 뛰어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나무도 큰 묶음으로 몇 지게 실하게 저다가 나뭇간에 쌓아주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매일 초하루와 보름날은 물론, 설날, 추석, 명절이면 토끼, 노루, 사슴, 산돼지, 산삼, 송이 등 많은 선물을 나뭇꾼 집에다 보냈다.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한 한을 씻고 사람이 하는 효도보다도 더 지효(至孝)를 하였다. 더욱 놀라운 일은 나뭇꾼의 아버지가 죽자 호랑이 새끼들은 물론 왕방산 호랑이 모두가 꼬리에다 배 형검을 매고 다녔으며 큰골 큰 호랑이는 나뭇꾼의 아버지가 죽자 호랑이 자신이 호랑이로 태어나고 또 효도함이 부족한 탓이라고 하여 고심(苦心)끝에 죽었다고 전한다. 그 후, 왕방산 큰골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고 존경을 받는 산신령의 상징이 되었다 한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 초대 漢詩 天年連田傳(천년연전전)



최종규 포천명유회장

- 社稷壇前禱福天(사직단전도복천)**  
사직단 앞에서 하늘에 복을 빌며
- 擴灌渠東西拆(확창과동서터)**  
과포를 확장하니 동서가 탁트되고
- 雨順風調種種樹(우순풍조종종수)**  
우순풍조하여 이맘부터 나무를 심고
- 野人自立愁何在(야인자립수하재)**  
시골 사람들이 자립을 하면 어찌 근심이 있으리오.

- 康衢網月願豐年(강구인월원풍년)**  
강구인월에 풍년들길 바라며.
- 開拓農邊上下連(개척농도상하연)**  
농도를 개척하니 아래위가 이어졌도다.
- 霧遊雲捲暮耕田(무소운권모경전)**  
안개가 지고 구름거치니 저물도록 밭을 개내.
- 富裕平安後世傳(부유평안후세전)**  
부유하고 편안함을 후세에 전하리라.